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
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누가복음23:28

통 권 _ 제 204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3월 25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사진설명〉3월 11일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제 9기 유소년 축구팀의 함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나의신앙이야기_한형석	2면
선교복지본부 특집	3,4,5면
아버지학교	6면
환경강좌	6면

로 템 나 무

지워지지 않는 이름

소중한 추억이 묻어나는
시간들을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해마다 수첩을 다시 정리한다.

그 수첩 한 권속에는
나의 지나온 1년의 발자취가
묻어나오는 것 같아
때론 혼자 웃음도 짓는다.

수첩을 정리하다 보면
지워지는 이름이 있고
새로이 채워지는 이름들이 있다.

‘지울까 말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보며
그 이름을 지워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 또한 남들의 생각 속에
지워지는 이름이 될까하는 두려움도 있다.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소중한 그대의 가슴 속에서
행복한 기억으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남고 싶다.

신형섭기자



사순절, 구속의 의미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순절(四旬節)은 기독교의 대표적
인 절기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십자가
와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
며 부활을 소망하는 기독교의 특별한
절기이다. 우리나라는 영어의 번역,

렌트(Lent: 봄을 뜻함)와는

달리 히브리어를 번역한 사

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사순절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40일의

기간을 뜻한다. 하지만 실

제적으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을

역산하여 그날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로 삼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

다. 그 이유는 주일을 그 기간에서 빼

기 때문이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또 다른 부활주일로 지키려하는 신앙

의 선조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다.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익숙

한 숫자이다. 구약에서의 모세가 목동

으로 훈련 받은 기간, 이스라엘의 40

년간의 광야생활, 시내산에서의 모세

의 금식 등은 물론 예수님의 광야 시

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 등이

모두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믿는 크리스천

들은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

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봄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특

별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절제된 말과 행동, 소비생활 등

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자라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성경의 중요하고도 완전한 숫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일시: 4월2일~6일 (월~금) 대예배실 / 강사: 김운용 목사 (장신대 예배 설교학)

성금요일 음악예배 “장엄한 예배” 4월6일 오후 7:30 (살롬 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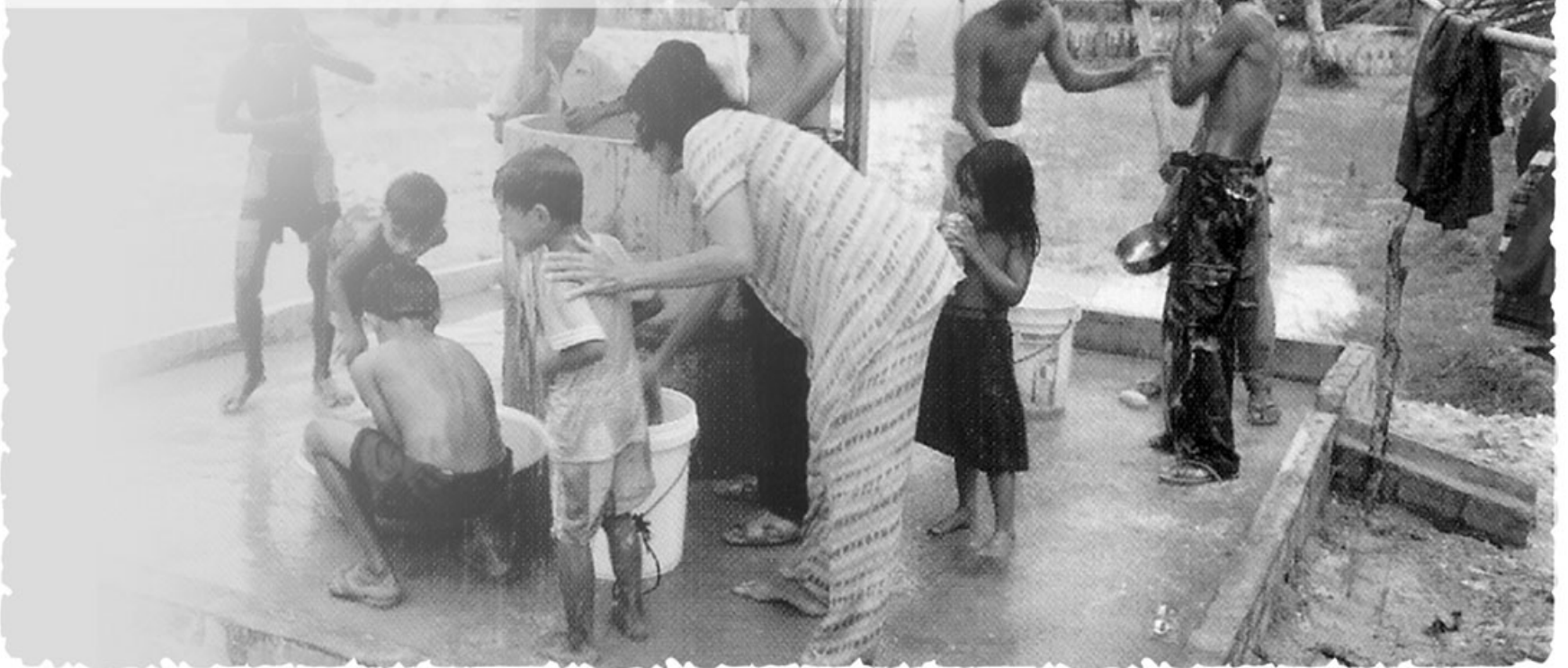
부활절 신앙 사경회 4월9일~11(월~수) 오후 7:30 강사: 김명용 목사 (장신대 조직신학)

부활절행사

※모집합니다.※

학원 선교부에서는 정신여고 2학년 기도어머니로 봉
사하실 분과 정신여중 2학년에게 복음 전하실 봉사자
를 모집합니다. • 고등부팀장 황정매 집사 016-715-1220 중등
부 팀장 임미경 집사 019-295-3734

“주님내가여기 있습니다.” 선교·복지 사역본부를 찾아서...



주님의교회에는 사역을 이끄는 중심 되는 본부들이 있다. 이곳에는 담당교역자와 본부장 그리고 본부위원들이 있으며 본부는 그 이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와 팀을 가지고 있다. 각부서와 팀은 부서장 혹은 팀장이 세워지고 수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팀원들이 있어 그 부서와 팀의 사역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질수 있도록 헌신하며 참여하고 있다. 오늘은 함줄함울 201호(2월 11일자)에 기재된 교육사역본부에 이어 주님의교회의 선교사역본부와 복지사역본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행1:8)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상교회에게 남겨진 최대 과제이며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역본부와 성도는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인애에 바탕을 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복지사역본부가 있다.

선교사역본부

“능동적인 선교방법을 찾아서 활동하길”



본부장 한윤경 장로 이지화 장로 김성배 장로 조원호 피택장로

선교사역본부는 한윤경 장로를 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위원으로는 이지화, 김성배 장로 그리고 조원호 피택장로가 봉사하고 있으며 교역자는 정희성, 윤은성, 나현수 목사가 돕고있다.

한윤경 본부장은 “새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하나님 사업을 은혜스럽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옆드려 기도하며 몸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듣겠다”고 말했다.

●전문인 선교팀

의료선교팀(팀장:김학원 안수집사)은 작년까지 안산과 광장동에서 외국인 환자 3000명을 6년 동안 진료했다. 주로 만성 근골격계질환과 피부병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했는데 올해는 안산 사업은 마무리하고 <남외국인 근로자



김학원 안수집사 황용환 집사 동경숙 집사

센터)에 정진할 계획이다.

김집사는 “올해는 교회안에서 의료진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외국인 센터 진료에 내실을 기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경비를 자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도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며 일손 부족을 호소했다. 한편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 기자의 질문에 상기된 표정으로 의료선교 초창기부터 해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건강한 육신과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다만 감사할 따름이라며 봉사하는 모든 팀원들의 생각도 같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법조팀(팀장:황용환집사)에서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30분까지 지하 1층에 대화의방(B1식당입구)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은 팀장인 황용환집사와 김완중장로, 임병일집사, 유철민집사(이상변호사)와 세무사인 구본석집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첫째주는 김완중장로, 둘째주는 황용환팀장, 셋째주는 임병일집사와 구본석집사, 넷째주는 유철민집사가 법률·세무 등 제반 법적문제를 매주 2-3명정도 무료상담봉사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한달에 한 번 ‘길가의교회’를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이팀은 작년 봄부터 교회 법조인, 법대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법조선교회를 결성하여 매주 2째주와 4째주 수요일 6:30부터 7:30에 법조인기도모임을 갖기도 하고, 3개월에 한 번 법조선교회전체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황집사는 “법 내용을 잘 몰라 어려움을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상담실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했다

미술팀(팀장: 동경숙 집사)에서는 금년에 미술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일과 전시회등을 통해 얻어진 성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는 일과 성도들과의 교류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동집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은 청각 장애아를 위한 색채미술 수업(청음회관)과 재소자를 위한 그림책 보내기 활동이다. 색채는 장애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마음에 평화를 느끼게 하며, 성경을 주제로한 만화책 역시 재소자들의 마음을 완회시키고 더불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팀장: 장일형 안수집사

●단기선교팀

단기선교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한 것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여 목회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알려진 바로는 기존에는 하기에만 선교사업을 펼쳤는

데 올해는 여름, 가을, 겨울 시기를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선교사업을 펼칠 것이다. 작년까지는 캄보디아에서 주로 선교사업을 펼쳤으나 올해는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서 선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팀장: 하승택 안수집사

●선교사지원팀

선교사지원팀에서는 해외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 하집사는 작년에 지원한 인원이 15개국에 월 600달러를 송금했으며 캄보디아에는 1800달러를 송금했다고 결과를 알려줬다. 그러나 해외선교의 지원금은 보다 객관적인 원칙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에서는 월 3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선교사는 여러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선교 지원은 자제되어야 하며 급지별로 구분해서 선교비를 후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등지의 후원물품으로는 컴퓨터, 재활용 옷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교회 선교사업팀



팀장: 조성득 안수집사

농어촌 교회 사업팀의 역할은 막중했다. 점진적으로 도시화되면서 농촌은 고령화되어 실질적으로 몸으로 돕는 선교가 필요하다.

외롭고 고독한 농촌노인들의 여생을 돌보며 영원을 구원해야하는 농촌교회의 목회자들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또한 물질적 기갈은 농촌목회의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시의 많은 교회는 자신들의 어머니의 땅인 우리의 시골보다는 해외 선교에만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교회 지원을 위한 주님의교회 농어촌교회 선교사업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도시개척교회사업팀



팀장: 문원홍 안수집사

한편 소외된 계층의 하나인 도시 미자립교회의 지원 역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가 점차 정체되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목회자는 아직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이 개척한 교회가 대형교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젊고 유능하며 의식있는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일은 주님의교회처럼 의식있는 교회의 활동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원홍 안수집사는 작년의 성과를 정리하게 평가하고 올해는 소외된 미자립교회를 발굴해서 돕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군부대교회사업팀



팀장: 윤의탁 안수집사

우리교회의 역점사업중 하나는 군부대 교회 사업팀의 활동이다. 이 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사명감을 지니고 군 입대를 하지만 스위트홈을 벗어날 때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는 장병들을 위로해줄 방안이 필요하다. 신세대 장병은 때로는 강하지만 대로는 심약하기도 한데 이때 복음은 그들의 영혼속에 쉽게 전파된다. 따라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나 GOP 전선에서 경계근무하는 병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위로는 제대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화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군부대 선교는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사랑하는 애인을 군에 보내는 심정을 담아서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할 분야이고, 본 교회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팀장인 윤의탁 안수집사는 작년의 성과를 온교우가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린 한해였다면 이러한 기도를 토대로 올해도 발로 뛰며 젊은 병사들에게 위안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집사는 주일 예배 후 부대를 심방하고 귀가하기까지 힘들고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기 위해서는 윤번으로 부대 방문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민을 솔직히 털어냈다.



복지사업본부



본부장 김현덕 장로 임주청 장로 김양자 장로 신정웅 피택장로

복지 선교본부는 김현덕 장로를 본부장으로 임주청, 김양자 장로, 신정웅 피택장로가 봉사하고 우동윤, 신화식목사가 돕고 있다. 복지 사업 본부는 1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회복지, 환경보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하프타임사업팀

하프타임사업팀에서는 노령화 사회에서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보내려는 사람들을 위한 분들에게 유익한 강의, 실습활동, 친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버이 주일에는 아버지 잔치를 열고,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를 개최하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금년도 하프타임 사업팀 사업내용을 다음표와 같다.

분야별	세부내용	시행시기 및 시행내용
하프타임강좌	• 교회내 교수 및 전문가초청 강좌 • 강좌후 친교 간담회 및 간식 나눔 • 야외 탐방 등 실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에서 4시 까지 3월 6일부터 시작됨. 3월27일 11시 양화진 참배 등 기타 야외 활동팀장
제3회 자선음악회	• 결식학생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계획 • 전문합창단 찬조출연 교인 및 일반인도 초청	10. 24. 7시30분 수요일예배시간에 실시예정 서울칸티클합창단 전문 오케스트라 초청
어르신 효도행사	• 70세이상교인수도권 관광투어 • 어버이날잔치 꽃달아주기등	• 수도권관광지 및 박물관 관광투어1회 실시예정 • 어버이날 행사에 초청연회 개설후 레크리에이션등 시행
찬양단 구성운영	• 앙코르 찬양단 지휘자, 반주자 결정시 연습 및 출연 예정	연습:주일 13시 출연: 어버이 주일
취미활동및친교	• 등산 등 친교활동 • 50세이상 외병자 및 장기결석자 심방	• 분기별 1회 등산 제1남선교회와 합동실시 • 심방 필요시 실시예정

●환경사업팀



팀장: 백숙자 권사

환경사업팀은 환경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과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는가라는 내용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교우들에게 환경 수세미제품을 보급하고 완제품 판매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익금은 기독교 환경단체에 전액 기부하며 친환경적인 독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교우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호스피스사업팀



팀장: 허명숙 권사

호스피스팀은 12개 병원과 5개시설, 홈케어팀에서 60여명의 교우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에게 마지막 사랑을 주고 주위에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다.

교회 내 환우들의 가정에서 요청이 있을시 우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봉사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 또 봉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남자교우들의 참여도 적극 요청했다. 이팀은 봄가을 무지개 호스피스교육



에 참여하는데 봄학기는 5월1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정동교회에서 총 50시간의 교육을 10여명의 교우가 참여하여 받고 있다. 홀수달 마지막 토요일에 월례회를 가지며 봉사자 재교육과 워크샵을 수시로 특강한다.

●전화상담사역팀



팀장: 김고미 집사

전화상담부는 YMCA 시절부터 주님의 교회에 있었던 봉사부서다. 주보와 주부편지의 안내로 교회 안과 밖의 교인들로부터 신앙과 일상생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상담을 받는다.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고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신분에 관한 질문이 없다. 화요일 9시부터 토요일 12시까지 상담부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받으며 연속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방문을 받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는 교회내의 전문가들과 연계를 시킨다. 여러 유형의 신도들이 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비전문적 교인도 상담부에 함께 할 수 있다.

●복지선교팀



팀장: 권승환 집사

복지선교팀은 도움이 꼭 필요한 복지법인과 새로운 곳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지도 목사와 현지를 방문하여 현실을 확인한 후 지원을 하고 있다.

분기별로 나눔의 물품을 모집하여 미자립교회와 복지 시설에 보내주고 있다.

●장애인사역팀



팀장: 신형섭 집사

장애인사역팀은 장애인에 대한 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위해 수화 교육을 양육 클래스에 추가하였다. 청각 장애우들에게는 보청기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날에 제 5회 정립 음악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팀은 의사소통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각 장애우들을 위해 안양 교도소에 3개월에 한번 씩 위문을 가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서로를 보살피주는 교우들이 협조가 항상 필요하다고 팀원들은 말하며 “관심은 갖되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장애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귀띔했다.



정립음악회 후 함께하는 공동체 식사

●기관사역팀



팀장: 임창남안수집사

기관사역팀은 팀장과 김낙균, 서용석 집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교에 관련된 단체들로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안에서 합당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현재 22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구제사역팀



팀장: 정양재 안수집사

구제사역팀은 독거노인 틈새가정, 장애인 기타 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많지는 않지만 기본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추천과 송과구민 및 우리 교회 주변 유관기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추천, 목회자들의 추천을 받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도움의 손길 요청이 매우 많아졌다. 요청된 모든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그리하지 못함이 늘 마음에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상하고 지치고 육신에 고통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내외 83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꿈나무 사역팀



팀장: 고유자 권사

소년소녀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80여명의 소년 소녀가장과 점심도 먹지 못하는 100여명의 결식 아동들에게 도움을 준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함사랑 기금팀



팀장: 정준호 집사

함사랑기금팀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역 준비팀으로 저 소득층 여러 가정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여성가장 창업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창업 준비에서부터 창업 후 경영 지도까지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팀을 준비중에 있다.

●복지법인 준비팀



팀장: 김병한 집사

당임목사의 부재상태에서 복지법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복지법인설립연구팀의 개념으로 타교회 복지법인전학과 복지법인 설립검토하고 있다.

(취재: 김기용, 신형섭, 장연수, 하태원 기자)

알려드립니다

분실물을 찾아가세요.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경책, 휴대폰, 옷가지 등 분실물이 사무실에 접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실물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지품을 잊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분실물 보관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부예배후 이동주차 협조

봄과 가을 학기 동안에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운동장에서 유소년축구가 진행됩니다. 운동장에 주차한 성도님들은 차를 이동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안내



주일에 학교 정문 앞 우성 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사잇길에는 주차단속을 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정신여자중고등학교 내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즐함울

함즐함울을 통해 교회부서를 홍보하거나 사역팀원을 모집하기 원하시는 분은 hamnews2006@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기사는 함즐함울 편집회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됩니다.



왜 [why] 란 뜻이에요

오른손 검지를 약간 구부려 관자놀이에 대면 왜 라는 뜻이랍니다.



달력 [calendar]

양손을 펴 상하로 대고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접은 후, 양손을 검지로 달력모양을 그리면 달력이란 뜻이랍니다.

예배의 현장

“가버나움 사람들, 거라사 사람들”



〈설교〉이 호 목사

지난 21일 수요일예배에서는 이호 목사가 “가버나움 사람들, 거라사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거라사’라고 불리는 마을에 도착한 예수님은 한 귀신들린 사람의 병을 고치신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는 호수로 빠져 몰사한다. 돼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었어서 이스라엘인들은 돼지를 먹거나 사육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라사 주민들은 돼지를 사육해 로마군에게 팔아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호수로 빠진 돼지 떼를 보며 거라사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까 두려워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어떠하였을까. 누가복음 8장 40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음이라’라고 기록돼 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소

생시키시고,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자 병이 고쳐졌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았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고쳐졌다. 엄청난 기적을 행한 분은 분명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한 것은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과 열정이었던 것이다.

이호 목사는 ‘교회는 마을과 같다’고 전했다. 신앙적으로 ‘주님의교회’가 지향해야 할 마을은 ‘거라사’가 아니라 ‘가버나움’임은 명백하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주님의교회가 바로 ‘가버나움’이 될 것이다. 물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회당장 아이로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주님의교회가 바로 영적인 가버나움이 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수요일예배가 끝났다.

(최사라 기자)

〈구역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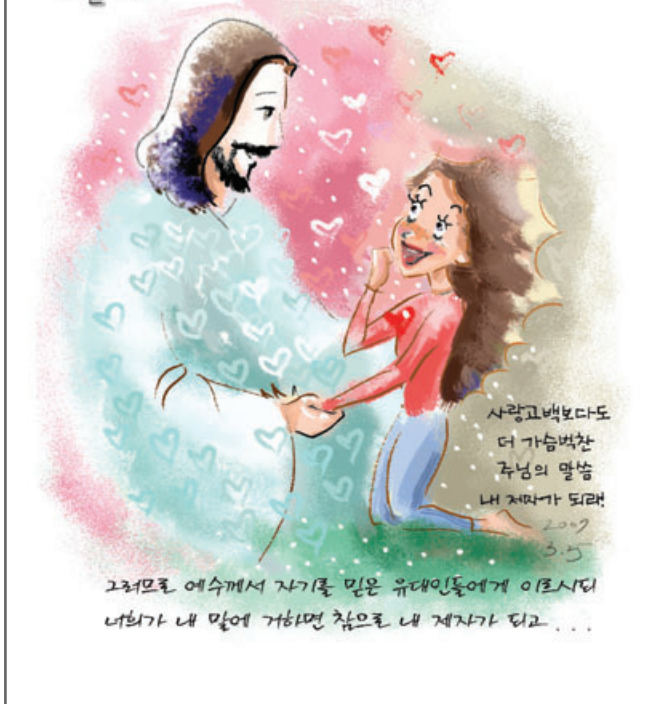
내 삶에 목적은 무엇이며 시험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주일 예배 3부예배를 마치면 1시 30분부터 제3수련실에 모여 일주일동안 못했던 사귀를 나누고 있는 구역이 있다. 그 구역은 믿음구역이라 불리는 청각 장애인들이 모임이다.

구역장 최영숙집사의 수화로 ‘목적은 이끄는 삶’을 읽고 청각장애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와 내 삶에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는 어떠하며, 다가오는 시험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 특별히 성경 중에 나오는 어려운 말을 수화로 익히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구역을 맡고 있는 최집사는 믿음구역에 대한 많은 성도들의 관심을 바라며 양육과정 수화 배우기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형섭 기자)

오늘 기도



의료선교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선교부에서는 3월11일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를 마치고 18명의 의료팀이 하남시에 있는 외국인 문화센터를 찾아 결혼이민자들을 진료하였다.

김학원 팀장을 선두로 하여 외국인 문화센터를 찾은 의료팀은 이국에서의 생활이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되길 간곡히 바랐다. 이날 성백술장로의 기도를 시작으로 치과, 내과, 한의과, 피부과, 외과, 소아과, 약국 등 종합병원의 모양새로 3시간 동안 43명의 외국인 이민자를 진료치료 했다. 진료하는 동안 내내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시어 기쁨이 가득하였으려, 봉사하고 은혜 충만하여 돌아온 성일 이었다.

(김홍룡 기자)



나/의/신/앙/이/야/기

“엑소더스”-세상의 틀에서 주님의 나라로 영광의 탈출을 간구하며

삼월 초부터 새벽 기도회에서는 성경 말씀순서로 구약성서 제 2권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가 진행 중이다. 영어로 엑소더스(Exodus)라는 의미의 이 말씀은 고교 시절 나에게 깊은 감동과 감명을 주었던 기억이 있다. 외부부에 근무하시던 외사촌 형 댁에 들렀을 때 최신 70MM 대형 영화로 유명하던 엑소더스 영화 음악 LP레코드판을 선물로 받았는데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로 시작하는 주제가 요즘도 널리 불려지고 있고 나 역시 가사가 좋아 즐겁게 애창하였다.

영화의 줄거리는 땅과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직후 승전국의 주선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밀 작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애굽에서 받은 박해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빠

져나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내용은 구약성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오래 전에 보았던 이 영화를 떠올리며 내 인생은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가 행한 일”로 이루어졌다고 볼 때 어디까지가 능동적이었고 또한 어디까지가 수동적이었는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가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일이 행해졌으며 그렇기에 나 자신이란 참으로 미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압도하는 것은 환경이고, 그 환경으로부터 출애굽 하도록 인간에게 연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또한 처음부터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듯이 선물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는 것이며 값없이 주신 선물에 감사드려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지

금까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처럼 흠이 많고 죄인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기를 간구한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직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처인 주님의 나라로 영광의 탈출을 감행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다.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틀에서 주님의 나라로 영광의 탈출을 감행하는 그 날까지 더욱 더 주님을 향하여 내 안에 자리한 욕망을 깨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형석 안수집사(5-5)

3월 중보기도모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기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한다.

지난 3월8일, 중보기도모임에 모인 기도사역자들은 정영환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담임 목사 청빙

을 위한 기도와 기독교 사학들을 위한 기도, 교육을 위한기도, 청소년을 위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보기도 모임은 기도를 배우는 즐거움, 기도를 하는 기쁨과 함께 많은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함께 사랑을 고백한다. 사순절을 맞아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모임을 은혜롭게 마쳤다.

기사제공: 송용미 집사(49)

권사회수련회

권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잊지 말자!

권사회에서는 3월 18일 오후 4시부터 19일 오전10시 까지 광주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1박2일의 수련회를 가졌다. 담당 교역자인 정희성 목사를 비롯하여 33명의 권사들이 참여하여 초봄의 정취를 맞보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은 레크레이션으로 통하여 굳어진 몸을 풀 후, 이중은권사와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를 통하여 평소 애가깝게 지내지 못하던 회원들과도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며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정희성목사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연구하고 계발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기도하는 권사가 되어야 한다고 권사의 덕목을

강조했다. 또한, 권사는 교인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둘째 날은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는 각자의 복주머니를 열어보며 서로에게 준 사랑을 확인했고 그 후 이상경권사의 원주의 생활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눔으로 이틀간의 수련회 일정을 마쳤다.

봄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부드러운 만지심과 김지자회장을 비롯, 임원진의원신으로 권사회 초유의 수련회가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다.

기사제공:신영숙권사 (1-12)

(환경강좌1) “에덴동산을 꿈꾸는 로하스의 삶”



정보영 목사(교회와여성 생명살림터)는 “성서 속에 보는 로하스의 삶”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지난 3월 21일 수요일 초등부실에서는 환경사역팀에서 주최하는 환경강좌 첫 번째 시간이 열렸다. 그 시간

로하스(LOHAS :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라는 개념은 환경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인 ‘사회적 웰빙’이라는 점에서 개인중심적인 소극적인 웰빙과 차이가 있다. 로하스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주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며, 자신의 건강 이외에도 후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소비 기반의 지속가능성까지도 고려한다. 생태위기는 기독교에 많은 책임이 있다. 인간중심적인 종교관으로 인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라는 창조신앙에서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과 훼손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생각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건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인 로하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공존공생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함께 살아남기 위한 우리 삶 전체를 같이 공생하는 삶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취재/정리 신형섭 기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 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17)

아버지학교,
은혜가운데 마쳐...

가정사역팀에서 주관하는 아버지학교(두란노 아버지학교 남동1기)가 5주간의 과정을 감동과 은혜가운데 마쳤다. 지난 3월 4일(주일) 중 예배실에서 있었던 수료식은 박대길 안수집사 등 우리 교회 성도 28명을 포함한 98명이 수료하였으며 감동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은 강의와 나눔, 세족식 등을 통해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서로 눈물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치유 받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발점이기도 했다. 한 형제는 “가부장적 권위로 돈이나 벌어드 주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왕따를 당해 왔었는데,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가정의 중요

성을 재인식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며 사랑 받고 존경 받는 아버지로 되돌아가도록 결단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고 고백했다. 또한 11명의 믿지 않던 지원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수많은 아버지들이 재결신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반성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버지학교는 벼랑 끝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을 살렸다. 행복한 가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미지근한 아버지들에게는 새로운 동기를 불어 넣는 멋진 아버지들의 공간이기도 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고 아픔과 상처도 치유가 되며 삶의 가치와 기쁨의 실체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기사제공: 박중순 집사(3-9)

※ <아버지학교>는 년 중 계속되며 아버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rther.or.kr)를 참조하거나 <가정사역팀> 박중순 집사(011-253-2621)에게 연락하면 된다.

성경세미나
“어? 성경이 읽히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부담중의 하나가 성경을 한 번씩 읽고 싶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목표를 세워도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성경일독이고, 또한 읽었다 하여도 그 맥을 짚어가며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그 것이 매 해의 목표였고,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빠져보고 싶은 마음과 흐트러져 있는 신구약의 구술들을 꿰고 싶어 하던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런 열망 가운데 3년 전에 이애실 사모님의 <어? 성경이 읽히네!> 라는 책을 접하며, 한번 꼭 직접 그 세미나에 참석해 보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그 세미나가 한 주간

동안 열려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매일 저녁,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사모님의 모습은 굳어진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창세기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자연과학적/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세계사와 인류일반역사, 이스라엘 역사로 나누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또한 그 것이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모으고, 만 들어서 지금도 그 성경속의 주인공들이 내 삶으로 들어와 함께 걸으며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니엘, 엘리야, 에스라 등 암흑 같은 시대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용기와 외로움, 그 분들이 겪었던 고통이 피부에 와 닿았으며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복을 잘 깨달아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우쳤다.

‘아! 정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식지 않으시는 사랑과 인내, 이루어 가시는 열정을 다시 한 번 뜨겁게 경험할 수 있었다.

기사제공:권주리 집사(3-9)